

나주시, 예술도시 도약 발판 마련

국제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예술행사 통한 예술 가치 공유 레지던스 제공·소통의 장 마련

나주시가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제 문화 예술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추진한 '국제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사업은 원도심 문화거점 공간을 중심으로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레지던스(숙식) 제공, 역량 강화 프로그램, 주민 교류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올해 사업은 지난해보다 한층 확장된 규모와 깊

이를 자랑한다. 창작 및 체류 공간을 기존 1곳에서 2곳으로 늘려 더 많은 예술활동을 지원했다. 또한 네트워크 교류 활동의 비중을 높여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와의 시너지를 강화했다.

예술가들은 나주시의 대표 문화예술 행사인 '나주영산강축제', '문화재 야행' 등에 활발히 참여하며 주민들과 예술적 가치를 공유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의 성과는 국제적인 교류에서도 빛을 발했다. 일본 후쿠오카시 시민 문화회관 '아트스트 카페' 관계자가 나주시 예술인 레지던스를 방문해 향후 교류 협력을 논의했으며 프랑스 파리 보자르 미술대학 학생들도 나주시 레지던스 활동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술가들은 사업 기간동안 총 60점의 창작물을 완성했으며 이 중 45점을 나주시에 기증해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했다. 작가별 기증 작품은 프랑스의 루벤 1점, 이삭 15점, 독일의 아드리안 9점, 폴란드의 필립 17점, 한국의 박항미 2점, 이종배 1점이다.

지난달 28일 귀국한 해외 예술가들은 고국에서 나주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널리 알리겠다는 뜻을 전하며 나주와의 소중한 교감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작가들의 작품은 이달 31일까지 죽림동 문화예술소통창작소에서 전시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국제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나주가 예술가들에게 창작의 영감을 제공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술인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주시를 글로벌 문화예술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장흥에 '노벨문학상 기념' 불빛 공원

한강 작가 부친 고향 회진면 일원에 야간 경관 조명

장흥군 회진면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해 회령진성 일원에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장흥 회진면은 한강 작가의 부모님이 태어나고 자란 곳으로 알려져 있다.

야간 경관 조명설치는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고 지역 진입관문인 회령진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나무, 폭포 등에 LED 조경수 조명과 장식을 설치하여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회령진성의

멋스러운 야간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1월말까지 매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불을 밝히는 경관 조명은 연말연시 따뜻한 지역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평가다.

장흥 회진면장은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을 전 주민과 함께 축하한다. 회진면이 노벨문학도시 1번지임을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한 무덤에 2개 돌방...함평서 '백제 왕릉급 무덤' 발굴



금동판

진양리 화동고분군 현장 공개 당시 정교한 석재 가공 기술 등 향후 역사문화권 정비 자료 활용

함평군이 지난 13일 전남도 문화유산자료로 지정된 함평 진양리 화동고분군 발굴 성과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갖고 현장 공개했다.

함평군은 화동고분군 보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학술 발굴조사를 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 1호분은 분구의 크기가 직경 16m인 원형분으로 무덤방(女室)과 출입시설(羨道)을 갖춘 전형적인 백제(사비)시대의 왕릉급 굴식돌방무덤으로 확인됐다.

무덤방은 하나의 봉분 속에 두 개의 돌방이 동시에 만들어진 쌍실분으로 밝혀졌다. 무덤방은 대형 판석을 다듬어 만들었는데, 당시의 정교한 석재



전남도 문화유산자료로 지정된 함평군 진양리 화동고분군과 발굴된 유물. <함평군 제공>

가공 기술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

1호 돌방은 도굴되어 바닥까지 전부 파헤쳐진 상태로 훼손되었으나, 출입구의 퇴적토에서 육각형에 꽃무늬가 새겨진 금동판이 출토되어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문양 구성은 인근의 함평 신덕고분에서 출토된 금동판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2호 돌방에서는 길이 99cm의 큰 칼과 은실로 용무늬를 그려 넣은 칼집 장식이 출토됐다. 그밖에

금동제관못과 정동쪽집게, 은제구미개, 흑옥 등 함평지역의 고대 문화를 밝힐 수 있는 유물들이 출토됐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진양리 화동고분군을 비롯해 최근 발굴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이 지역 역사문화권 정비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며 "진양리 화동고분군의 발굴 성과를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장흥군, 5년간 C형 간염환자 126명 '전남 최다'

진도·신안·고흥 등 해안지역서 발생률 높아...원인 규명 대책 필요

C형간염환자가 도내에서 장흥을 비롯한 해안을 끼고 있는 지역에서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질병관리 차원의 특별한 원인 규명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열린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장흥군 C형간염환자수는 126명에 이르며, 주로 50대 이상 여성 환자 발생률(71%)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흥지역 지난 5년간 C형간염환자 발생을 살펴보면 2019년에 28명, 2020년 33명, 2021년 26

명, 2022년 20명, 2023년 19명으로 총 126명 가운데 50대 이상이 125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전남도 '감염병지원단' 측은 C형간염 전파경로를 'HCV에 오염된 혈액 또는 혈액제제의 수혈, 주사용 약물남용 및 주사기 공동사용'이나 'HCV에 오염된 기구를 이용한 사설문신(눈썹) 및 피어닝 시술' 등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이 정확한 근거라고 믿기는 어렵다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명숙 장흥군보건소 질병관리과장은 "C형간염은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 예방 및 관리가 어려우나 효과적인 치료제가 나와 조기 발견만 하면 완치가 가능하다"며 "지역 내 병·의원에 주사기 재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주민들에게 사설문신(눈썹) 주의를 당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국 C형간염 환자는 10만 명당 19.55명인데 반해 전남은 36.97명으로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았다. 전남 지역에선 진도, 신안, 고흥, 장흥순으로 주로 해안 지역에서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장성 숲 가치 높인다

군·SK입업, 산림사업 공동 추진

장성군이 SK입업주와 산림자원 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전남의 관문인 장성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편백나무 조림지를 비롯해 삼나무 등 상록수로 이뤄진 1150ha 규모의 방대한 숲을 품은 축령산이 유명하다.

산림청도 압도적인 규모와 고유의 가치를 인정해 '22세기를 위해 보존해야 할 아름다운 숲'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장성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김한중 장성군수와 관용일 SK입업주 담당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SK입업주는 SK주회사 계열사로 자연 기반해법 탄소배출권 사업 참여, 친환경 에너지기술 도입,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조경 관리 기술 개



장성군이 SK입업주와 산림자원 가치를 높이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 협약을 하는 김한중(왼쪽) 장성군수와 SK입업주 관용일 담당임원. <장성군 제공>

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장성군과 SK입업주는 협약에 따라 '산림을 통한 탄소중립 정책 강화', 'ESG산림경영'을 위한 조림·복제사업 등 다양한 산림사업을 발굴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이번 협약이 탄소중립도시 전환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산림자원 가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세계인 입맛 사로잡은 '대숲맑은 담양쌀'

올 역대 최대 5개국 300t 수출

담양의 '대숲맑은 담양쌀'이 역대 최대 규모 수출량을 달성했다.

담양군에 따르면 올해 담양쌀은 프랑스·베트남 등 5개국에 300톤이 수출됐다. 2018년 개시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 실적이다.

올해 담양쌀은 지난 4월 프랑스 현지 유통업체인 에이스푸드와 연간 공급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베트남·미국·브라질·체코 등에 공급을 시작했다.

특히 11월에는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의 한국인 임직원 식당으로 100톤의 납품 계약을 체결하며 전년 129톤 대비 두 배 이상 오른 최고 실적을 견인했다.

이는 지난 2022년 준공된 담양군통합RPC가 농산물우수관리(GAP) 시설 인증을 획득하며 까다로운 유럽 농산물 통관절차에 적합하고 현지인의 입맛에 맞는 도정 설비를 갖춘 결과로 풀이된다.

담양쌀은 2014년 대한민국 명품쌀 평가에서 대상 수상했으며, 2년 연속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대상을 수상하며 최고의 밥맛을 인정받았다.

안상현 담양군수는 "최근 한류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한식이 세계적인 건강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번 수출을 계기로 전 세계의 식탁으로 담양농특산물이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나주시, 소외이웃 위한 소액 모금 운동

'기빙나주뱅크' 연합모금 3자 협약 체결...기부 문화 확산

나주시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주시지역 사회보장협의체가 연합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소액 모금 운동을 추진한다.

나주시는 최근 시청사 이화실에서 이들 기관과 '기빙나주뱅크' 연합모금 3자 협약을 체결했다. 기빙나주뱅크는 '나누어 주면 배가 되는' (Share! Give! Double!) 약칭 '나주배'의 가치를 담아 명칭을 정했다.

3개 기관은 지역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뿐 아니라 서로 돕는 착한 나주인이 모여 착한 나주시를 만드는 기부 문화 확산을 목표로 범시민 소액 모금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 중 나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배분되는

기부금의 경우 공적제도 밖에 있는 관내 취약계층의 생계·의료·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으로 우선 사용하기로 했다.

연합모금 협약식엔 안상현 나주시시장, 홍철식 지사협 협의회장, 김동국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안상현 나주시 부시장은 "기빙나주뱅크 연합모금을 통해 나누어 주면 배가 되는 나주배의 가치에 개인과 단체, 기업·기관의 많은 관심과 지지, 착한 기부가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빙나주뱅크 기부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계좌로 후원할 수 있으며 후원금은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화순군, 미술 아카데미 수강생 작품전

다음달 19일까지 수채화·문인화·캘리그래피 등 89점 선보여

화순군은 내년 1월19일까지 화순 군립 운주사 문화관에서 아카데미 작품전 '따나는 첫걸음'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는 올해 운주사문화관 미술 아카데미를 수료한 수강생 28명의 수채화, 문인화, 캘리그래피 작품 89점이 선보인다.

수채화 작품은 특유의 투명성과 색의 변질을 통해 감정과 분위기를 섬세하고 아름답게 표현했다.

문인화 작품은 동양화의 전통적인 기법을 바탕

으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간결하게 담아냈으며 캘리그래피 작품은 글자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시각적으로 재구성해 예술적 가치를 창출했다.

전시회 참여 한 작가는 "그림을 그리는 시간은 모든 고민을 잊게 하고 한없이 행복하다"며 "미술 아카데미를 통해 새로운 인생 2막을 열어준 화순군과 문화관 측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전시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